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4 권 25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후 친교실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한국어 성체조배: 매월 둘째 수요일 한국어 저녁미사 후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제 1 독서 탈출 34,4 -6.8-9 화답송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커룩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제 2 독서 2 코린 13,11-13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복음 요한 3,16-18 영성체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6 월 15 일	전 니콜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6 월 22 일	유 요한	이 요한	성인복사
6 월 29 일	이 클라라	이 바오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7 월 6 일	이 마틸다	김 헬레나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7 월 13 일	전 니콜	이 요한	정 안드레아, 허 벤자민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6 월 8 일	\$ 300.00	-	\$200.00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주일미사' 전 기도 - 주일 미사 시작 전 15 분

'아침 8 시 주일미사' 전에 삼종기도와 아침기도를 매주 바치기로 했습니다. 미사시작 15 분 전까지 성당에 오셔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6 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미사시작 5 분전에 다함께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바칩니다.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체조배: 매월 둘째 수요일 저녁미사 후

매월 둘째 수요일, 7 시 30 분 저녁미사 후에 한국어 성체조배 및 성체강복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 시복식 및 성지순례: 8/11(월)-8/16(토) 5 박 6 일

교황님과 함께하는 124 위 한국 순교자 시복식 및 한국성지순례
-1 차 신청마감: 비용 1 인당 \$900 (6 월 20 일 이전 신청 시)
-2 차 신청마감: 비용 1 인당 \$1,100 (7 월 20 일 이전 신청 시)
참가비 지불방법: 수표 또는 크레딧 카드. 항공료는 별도
*신청 및 문의처: Tour America. 전화 (201) 224-0096
*온라인 신청 및 정보: www.kapaus.org/2014korea

*참가신청을 하신 분들은 김 헬레나 자매(총구역장)께 알려주십시오.
*기타 상세내용은 '6 월 매일미사책' 전면광고란 를 참조해 주십시오.

성서통독: 6/22(주일) 부터 '매 주일 미사 후 10 분씩'

6 월 22 일부터 주일미사후 10 분씩 '사도행전' 을 다함께 봉독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펴낸 성서를 지침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한인공동체 레지오 마리에 신심단체를 결성하고, 현재 남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클라라 자매님(단장)께 문의해 주십시오.

성체조배: 6/11 (수) 한국어 '7 시 30 분 저녁미사' 후

소공동체 구역모임: 6/15(주일) '아침 8 시 주일미사' 후

6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6 월 15 일 주일 아침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산클레멘테 Garage Sale: 6/21 (토) 오전 7 시 - 오후 1 시

장소: 성당 주차장
Vendor set-up 시간: 5:30 am - 6:30 am (Vendor fee: \$15).
일반인 쇼핑시간: 7 am - 1:00 pm
문의 및 후원 연락처: 661-247-7970 (Susana).

가톨릭 예수회 2014 년도 '성경대학 7 학기' 안내

주제: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본 예수 생애 2"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 (예수회 한국 관구)
일시: 6/27(금) 저녁 7:00-10:00, 6/28(토) 저녁 6:30-9:30,
6/29(일) 저녁 6:30-9:30.
장소: 성 아그네스 성당(회관), Vermont 과 Adams 코너.
St. Agnes Church. 26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대상: 신자 및 일반인 모두 환영. 수강료: \$50 / 3 일 (\$20/ 1 일).
등록문의/접수: (323) 731-4433(사무실). (323)896-7525(김 크리스티나)
Email: eunock55@yahoo.com

남가주 '제 2 회 가톨릭 성화 미술 대회'

대상: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
주제: 주님은 나의 목자. 작품크기: 18 인치 x 24 인치.
재료: 크레파스, 수채와, 유화, 컴퓨터 그래픽 등 2D 평면화.
참가비: 10 불 (check payable to "Hyun Jon").
보낼 목록: 작품, 참가비(10 불), 응모원서.
응모원서: 이름, 학교와 학년, 나이, 본당, 전화,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재.
보낼곳: 가톨릭 신문사 (1502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접수 및 마감: 6 월 1 일-6 월 30 일. 발표: 가톨릭 신문 7 월 20 일 자
문의: 남가주 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818-667-2877)

한인공동체 '교적 확인 및 업데이트'

본당 한인공동체 교적 확인 및 정리 작업하고자 하오니, 나눠드리는 서식 (주보 옆에 비치)을 정확히 기재하시어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 자매님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제출 증빙서류: 이전 성당에서 교적을 전출해 오시거나, 세례성사, 견진성사, 혼배성사의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의 이삭

딸아이 앞에서의 고백

윤미숙 베로니카 | 그림애니그래프 연구소 소장

딸은 월경이 시작되면서부터 살이 쪼고, 월경통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월경이 시작되는 하루나 이틀 동안에 진통제를 시간마다 먹어서, 혹시나 습관이 되지 않을까 본인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게으른 어머니는 10여 년을 그리 보낸 후에야 딸아이와 함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진맥을 한 의사 선생님은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신경성 같은데, 어린 시절 아이가 먹어야 할 때 배를 뚫은 적이 있느냐?" 고 체계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도 마음이 허기져 계속해서 먹게 되고 식욕조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경통은 자신이 여자이기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신체적 질병이 마음의 병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딸의 통증이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딸아이가 6살 쯤, 설사와 변비를 번갈아 하기에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아이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신경성 위장염입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괜찮은 엄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엄마였습니다. 딸아이는 편식 없이 아무거나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잘 먹을 때는 많이 먹는다고 야단을치고, 아이가 먹지 않으면 왜 안 먹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먹을 때마다 엄마의 눈치를 봐야하는 딸은 음식을 빨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할 수 밖에요. 엄마인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이에게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몸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니 속속들이 죄짓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늦은 점심을 먹으며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미안하다. 기억해보니 엄마가 너에게 '예쁘다' 든지 '사랑한다' 는 말을 해본 적이 없구나. 네가 많이 아팠을 것이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살이에서 오는 분노와 억압, 내 모든 감정의 탈출구로써 딸아이를 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은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 엄마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자신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딸아이를 생각하면 미안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진심으로 딸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제말을 들어주었습니다. 물론 오래된 상처가 사과 한마디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엄마의 어둠에서 벗어나환한 세상으로 나아가 제 딸이 비상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서울주보에서-